|  |
| --- |
| **보도자료 – 차백신연구소**  **홍보본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

배포일 : 2025년 9월 16일

|  |
| --- |
| **차백신연구소 독자개발 면역증강제 Lipo-pam™(리포-팜), CEPI(감염병혁신연합)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등재**   *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14개 기관 선정** * **글로벌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에 Lipo-pam™ 공급 기회 확보** * **“Lipo-pam™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 |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코스닥 No: 261780, 대표이사 한성일)는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 Lipo-pam™(리포-팜)이 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감염병혁신연합)가 구축한 ‘백신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Adjuvant Library)’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CEPI는 이번 라이브러리에 등재될 면역증강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발 단계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가진 면역증강제 구성 ▲중저소득국(Low-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공급을 고려한 대규모 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인도 등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바이오텍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한국에서는 차백신연구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CEPI는 2022년부터 ‘100일 미션(100 Days Mission)’을 추진하고 있다.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100일 이내에 신규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CEPI는 백신 후보물질, 플랫폼, 면역증강제 등을 사전에 확보해 위기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는 그 인프라의 핵심으로, CEPI 지원 백신 개발 기관에게 제공하는 25종의 엄선된 면역증강제로 구성된다. 백신 후보물질과 면역증강제 간 최적의 조합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플랫폼’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차기 팬데믹 상황에 필요한 백신 개발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라이브러리는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이 운영을 맡는다.

Lipo-pam™의 CEPI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등재는 단순한 기술 등록을 넘어, 차백신연구소가 국제 백신 생태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CEPI 지원 기관은 Lipo-pam™을 비롯한 면역증강제를 백신 후보물질과 조합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그 효능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개발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차백신연구소가 글로벌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에 Lipo-pam™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차백신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술이전 기회 확보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등 다각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유한 면역증강 플랫폼을 바탕으로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항암 백신, 코로나·인플루엔자 혼합 백신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을 모색하며, 글로벌 백신 네트워크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백신연구소 한성일 대표는 "이번 등재는 Lipo-pam™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 세계 백신 개발 기업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Lipo-pam™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는 면역증강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EPI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대표는 “면역증강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백신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여온 핵심 요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공급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조합’이 아닌 ‘이용 가능한 조합’에 의존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라이브러리 구축은 다양한 면역증강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향후 팬데믹 대응 속도를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PI는 감염병과 팬데믹의 위협에 대응해 신속한 백신 개발을 목표로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등 글로벌 재단과 대한민국∙노르웨이∙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끝)

**\* 차백신연구소 소개**

차백신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차백신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엘-팜포'(L-pampo™)와 '리포-팜'(Lipo-pam™)은 TLR2·3 기반 면역증강제로, 면역세포 활성을 극대화해 백신의 효능은 물론 다양한 면역치료제의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차백신연구소는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B형 간염 백신, 대상포진 예방백신 등의 임상1상 및 2상 시험을 완료했다.

**\* 면역증강제란?**

면역증강제는 항원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물질로, 주로 재조합 단백질 백신에 사용된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항원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 안전성은 높으나, 기존 백신에 비해 면역원성이 약하다. 이러한 백신에 면역증강제를 넣어 면역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